

특집논문

여성과 빈곤

최기숙 | 18세기 여성의 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빈곤의 감성 통제와 여성의 삶

황수연 | 19세기 사족 여성의 빈곤 경험과 대처에 관한 연구

소현숙 | 생존과 자존의 길 찾기-1920~30년대 여성 이혼과 빈곤문제

손혜민 | 전후 ‘근로대중’의 형성과 빈곤의 젠더화

- 정비석의 『민주어족』(1954,1955)을 중심으로 -

공임순 | 빈곤의 포비아(phobia), 순치되는 혁명과 강패/여공의 젠더 분할

18세기 여성의 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빈곤의 감성 통제와 여성의 삶*

최기숙**

「차례」

1. 서론
2. 가난과 여성 수양/내조: 빈곤의 감성 통제와 이념화
 - 2.1. 수양으로서의 가난: 한 번도 가난하지 않았던 것처럼
 - 2.2. 가난을 잊지 않는(不忘貧) 미덕: 언제나 부유하지 않았던 것처럼
 - 2.3. 빈곤의 감성 통제와 언어 규율: 말하지 ‘않은/못한’ 여성 가난의 징후
3. 甘貧·克貧·治貧: 주체가 되지 못한 여성의 경제와 노동
 - 3.1. 가계와 살림으로서의 빈곤 관리
 - 3.2. 비-축재, 비-소유의 여성 자산
 - 3.3. 가난과 공생의 미덕: ‘돌봄/배품’이라는 여성의 사회적 책무
4. 빈곤과 여성 교양, ‘기적’ 또는 ‘묵음’의 수사학
 - 4.1. ‘다른’ 삶에 대한 요구, ‘세속의 부녀와 다르다’는 평가의 이면
 - 4.2. ‘품성/인격’의 젠더 정치와 ‘언어’를 갖지 못한 여성의 삶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18세기 사대부 남성이 쓴 여성 생애사 자료 총 1063편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에 대한 인식 및 경제 활동에 대해 고찰하되, 여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1-A00003).

이 논문은 제 5회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 “빈곤과 여성: 근대 이후 여성의 빈곤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2014.4.19,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601호)에서의 발표문을 수정한 것이다.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교수

성의 삶 속에서 여성의 경제에 대한 인식, 활동, 의미화에 주목했다. 아울러 ‘가난’과 ‘빈곤’이라는 삶의 문제에 대해 여성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또한 이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입장은 어떠했는지를 고찰했다.

18세기 여성 생애사 기록들은 가난한 집안의 여성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가계를 책임지고 가난을 극복하며 시부모에 대한 효도와 남편에 대한 내조, 자녀 교육, 친인척에 대한 돌봄과 배움의 의무에 충실해야 했음을 보여주었다.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조건과 이념은 가난의 일차적인 희생의 몫을 여성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여성의 수양으로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육체적, 물질적 노동을 인격의 차원으로 수렴하는 한편, 빈곤으로 인한 여성의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한 ‘통제’의 정치를 작동시켰다. 그 가운데 이루어진 여성의 노동과 빈곤 관리는 청렴과 안빈낙도라는 사대부 교양을 지탱하는 현실적, 경제적 바탕이 되었다.

이때 여성의 경제력이나 치산 능력, 빈곤 관리는 철저히 ‘윤리’의 용어로 재현됨으로써, 당시의 유교적 통치 이념 속에 여성이 스스로 적응하도록 작용했다. 당시의 제도적 문자였던 한문을 배우고 쓸 수 있는 기회로부터 배제된 여성들은 남성-가족의 글쓰기를 통해 ‘자기의 역사화’가 위임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가족 안에서의 인정을 얻기 위해 가장-남성이 원하는 여성의 책무에 주력하도록 추동했으며, 그 결과 여성은 빈곤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희생자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했다.

이 논문은 18세기 빈곤 여성에 대한 남성 기록의 생애사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는/되지 못한’ 존재들이 어떻게 역사와 현실 속에서 ‘투명한 존재’로 ‘목음 처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편적 성찰의 지점을 생성해 보고자 했다.

핵심어: 빈곤, 가난, 여성, 생애사, 경제, 노동, 감성, 감성통제, 청렴, 안빈낙도, 재산,

품성

1. 서론

‘예에 이르기를, “부인의 행실은 문지방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했다’(禮云, 婦人之行, 不出於梱)¹⁾는 문장은 유교적 예법에 맞는 삶을 살아온 여성을 치하하고 격려하는 일종의 경구로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대부(지식층 남성)의 글에 자주 인용되었다. 규문을 나서지 않는 여성을 미덕으로 간주하던 조선시대 문화는 여성의 능력이 온전히 규문 안으로 발휘되고 총집되는 것을 권장해 왔다. 이는 단순한 ‘예법’의 차원이 아니라, 여성의 문자 생활과 지식 축적을 제한해 온 문화 통제로 현실화되었으며, 이를 여성 교육의 주요한 지침으로 간주하는 역설의 문화 구조를 형성했다. 다시 말해 여성은 문자를 배우지 말아야 한다는 반(反)교육에 대한 교육의 역설이 조선시대 여성의 교육을 둘러싸고 존재하던 역사적 현실이었다.²⁾ ‘부인의 행실이 문지방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여성적 삶의 반-사회화·비-역사회에 대한 규범을 형성하는 문화적 전제로 활용되었다.

그렇다면 이른 바 전근대 사회(조선시대)에 ‘문지방 안으로 쏟아진’ 여

- 1) 李頤命, 『外王母貞敬夫人李氏墓誌』. 그 밖에 ‘부인의 행실은 문지방을 넘어서지 않으니 적을 만한 것이 드뭅니다(婦人之行, 不越乎閨閫, 固鮮可紀).’(李宜顯, 『寧嬪安東金氏墓表』)와 같은 서술이 전한다. 임성주는 ‘부인의 행실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존경하는 할머니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 삶 또한 맹자의 어머니나 정호/정이의 어머니 못지않은 평을 받을 것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 ‘아! 부인의 행실은 진실로 바깥로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 할머니의 덕행을 글쓰는 군자로 하여금 역사에 쓰게 해서 드러낸다면, 맹자의 어머니인 후부인과 나란히 전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嗚呼! 婦人之行, 固不外見, 若我祖妣之德之行, 使有立言君子載之彤史而表章焉. 則當與孟母侯夫人並傳而無愧.)’ (任聖周, 『祖妣孺人全州李氏墓誌』)
- 2) 물론 왕실의 여인들은 문자를 알고 학문에 해박한 것을 치하하는 문화가 존재했으며, 사대부가의 여성이 역사와 경전에 밝고 지적인 호기심이 출중하며, 문자가 뛰어나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기술한 글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한된 시각이었다. 물론 여기서의 문자는 ‘언문’이 아닌 ‘한문’을 의미했다. 또한 조선시대 여성의 교육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존재했으며, 그 가운데에는 ‘문자를 배우지 않아야 한다’는 ‘반-교육’의 역설이 포함되어 있다.

성의 행실(존재, 행동, 관계의 흔적들)은 어떻게 존재하고 또한 외화되었는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역사화된 기록(문학사 자료)에 대해 어떠한 이해의 관점을 생성할 수 있겠는가.

글쓰기의 권한과 자격을 부여받고 제도적으로 양식화된 글쓰기로 단련해 온 사대부 중에는 글쓰기의 주체와 대상에서 소외된 인물들을 기록하여, 이를 가치화하고 역사화하려는 지속적, 간헐적, 일회적 시도를 모색한 문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대상 중에는 중인, 기생, 예인 등 신분적 지위 때문에 글쓰기의 주체로서 배제된 대상도 존재하지만, 글 쓰는 문인의 가족이나 친척이면서도, 신분적으로 동일한 혜택이나 권한을 누릴 수 없었던 ‘여성’이 포함되었다. 이 여성들은 글 쓰는 주체, 즉 사대부 문인의 가족이거나 지친의 가족과 인척이었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삶의 기록물인 제문, 행장, 행록, 전, 묘지명, 수서 등 생애사 서술을 통해 여성적 삶의 가치를 기록하고, 전파하여 모범으로 삼고자 했다. 이를 통해 글쓰기 대상자와 함께 한 자신의 기억을 환기하고 타인과 공유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고 이들을 역사화하고자 했다. 이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보존하며 전파하는 글쓰기의 역능에 대한 실천의 행로였다.

그 결과 여성에 대한 삶의 기록물들은 글쓰기의 주체인 사대부 남성의 시각을 ‘매개로 한’ 결과물로 남게 된다. 한문을 표기문자로 삼아 여성 자신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기록하거나 타인의 삶을 해석한 사례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사대부 문인의 글을 통해 조선시대 여성과 그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당대에 존재하던 글쓰기의 역사문화적 맥락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매개된 시각’과 ‘입장’에 대한 비평적 독해로서 이루어져야 한다.³⁾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여성의 삶과 행적이 사대부 남성의 가치 지향과 실천적 행적 속에서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의미화했는지에

3) 이러한 연구의 시각에 관해서는 최기숙, 『메타 비평으로서의 고전 독해: 고전서사의 젠더비평적 독해를 위한 방법론적 고찰』(『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을 참조.

대한 역사·문화적 궤적을 살피되, 특히 가계 경제를 담당했던 여성의 경험적 현실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곤경으로 작용했던 빈곤의 문제에 주목한다. 조선시대의 사대부층에서 빈곤은 정면으로 타개할 대상으로 사유되기보다는 ‘청빈’과 ‘안빈낙도’라는 유교적 이념과 문화 속에서 포용하고 만족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지만, 실제로 ‘빈곤한 삶’을 짊어진 것은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대부 남성의 삶의 가치가 현실에서 살림을 담당하던 여성의 삶을 어떻게 규제하고 추동해왔는가를 고려한다. 또한 여성 스스로 ‘가난’과 ‘빈곤’이라는 삶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이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입장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본다.⁴⁾ 이를 통해 ‘경제’와 ‘이념’이 ‘문지방을 넘어서지 않은’ 여성의 삶(규문 안의 삶)을 어떻게 지배해왔는가에 대한 인문적 성찰의 지점을 제출하고자 한다.⁵⁾

이를 위해 18세기 사대부 남성에게 의해 쓰인 여성의 생애사 기록물인 제문, 행장, 묘지문, 전, 행록, 유사 등의 자료 1,063편을 대상으로 삼는다.⁶⁾ 18세기로 초점화한 것은 경제에 대한 인식이 19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4) 이 논문에서 ‘가난’은 ‘貧’에 대한 심리적 인지와 대응을 강조한 용어로, ‘빈곤’은 ‘貧’이라는 경제 상태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용어로 구분해 사용하고자 했다. 물론 양자간의 상호 간섭과 교차가 존재한다.

5) 조선시대 사대부의 돈과 부, 경제에 대한 인식 및 구비설화를 대상으로 한 돈/부자 담론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기숙, 『‘돈’의 표상성: 18·19세기 경제관념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18·19세기 야담집 소재 ‘돈’ 관련 일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29호, 국제어문학회, 2004; 『돈의 윤리와 문화 가치- 조선후기 서사문학의 경제적 상상력』, 『현대문학의 연구』 32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착한 돈과 윤리적 사회, ‘부자’를 보는 문학적 시선 -구비설화에 나타난 ‘돈/ 부자’ 담론의 서사 논리와 문학적 상상』, 『민족문학사연구』 37호, 민족문학사학회, 2008; 강혜선, 『조선후기 사족 여성의 경제 활동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강성숙, 『조선후기(19세기) 일상생활의 장에서 남녀/젠더 차이의 간극과 교섭: 가장의 역할을 한 여성의 생활사 서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등.

6) 이 글에서는 황수연 외, 『18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 1-8권(보고사, 2010)을 대상으로 하되, 본문을 인용할 때는 ‘:’를 경계로 인용 권수와 쪽수(번역문의 시작 쪽수)를 병기하며, 한문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http://db.itkc.or.kr>)를 활용하였

로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⁷⁾ 빈곤에 대한 여성의 대응과 이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변화와 차이에 주목하기 위함이다.

2. 가난과 여성 수양/내조: 빈곤의 감성 통제와 이념화

조선시대에 ‘청렴’과 ‘안빈낙도’를 수양의 전제로 삼았던 선비의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시에,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지하며 ‘현실화’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말하자면 가장이 빈곤과 궁핍으로 인해 ‘청렴’과 ‘안빈낙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할 ‘내조의 의무’가 여성에게 부과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역으로 여성이 빈곤의 어려움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나 공론장이 부재했음을 시사한다. 빈부귀천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수양의 척도로 판단하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빈곤으로 인한 여성의 고통은 일종의 감성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고통스런 감정을 통제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것을 가치 있는 태도로 기록하는 글쓰기 문화를 통해 이념화되었다.

다. 총 편수는 이 자료집에서의 편집 체제를 따라 산정했다(1권:163편; 2권:170편; 3권:184편; 4권:100편; 5권:131편; 6권:107편; 7권:103편; 8권:105편 = 총 1,063편). 번역자료집의 표제는 ‘생활사’ 자료로 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원텍스트의 생생 맥락을 고려할 때 ‘생애사 서술’에 초점이 있음을 고려하여, ‘생애사 서술’로 지칭한다. 원문을 인용할 때, 부분적으로 필자가 번역을 수정했음을 밝힌다. 이와 더불어 이덕무의 『사소절』 중의 ‘부의(婦儀)’는 여성의 생애사 자료는 아니지만, 여성 교양에 대한 사대부의 인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므로 참조했다.

7) 강성숙(2013)의 논문을 참조하면, 19세기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과 빈곤을 타개하는 방식은 본고에서 다룬 18세기 여성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비교가 필요한 경우, 이 논문의 해당 부분에서 다루기로 하며, 이에 대한 정치한 비교는 다루지 않는다.

2.1. 수양으로서의 가난: 한 번도 가난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대부가 남긴 여성의 행록, 제문, 전, 묘지문 등 생애사와 관련된 기록에서 가난을 대하는 여성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 ‘가난을 드러내지 않았다’, ‘가난을 표내지 않았다’는 언술이었다. 말하자면 ‘가난’의 여파인 배고픔, 더러움, 누추함, 고단함, 질병의 태를 내지 않는 것은 사대부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어머니, 며느리인 여성에게도 요청되었던 미덕이었으며, 상층 여성의 수양이자 교양이었다.⁸⁾ 그리고 사실상 남성이 가난을 표내지 않을 수 있었던 데에는 여성의 뒷바라지와 헌신이 작용했다.⁹⁾

말하자면, 사대부가에서 지켜야 할 여성 수양의 뚜렷한 증거로서, ‘고통 감수 능력’이 가난을 매개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고생을 표내지 않는’ 것을 ‘성숙한 삶의 태도’로 인정하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 ‘청빈’과 ‘안빈낙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배적 이념으로 작용했다.

① 다른 사람들의 부유함을 보면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은 부유하고 나는 가난한 것은 운명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혹은 온종일 먹지 못해 등이 굽어 일어나지 못할 때에도 나에게 성내거나 비난하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見人富厚無伎羨意, 嘗曰: “人富我貧命也.” 或曠日不食, 飢不能興, 而未嘗對範祖有慍訕語.). (丁範祖, 『亡室贈淑夫人鄭氏墓誌』, 5:215)

② 검루 같은 가난한 선비도 아내가 어질어 가난함을 잊었고, 기결 같은 농부도 아내가 손님처럼 공경하였으니, 밥상을 눈썹까지 들어 올려 바쳤고,

-
- 8) ‘우리 집이 가난하여 조씨가 몹시 몸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당신은 선비이고, 저는 선비의 아내입니다. 항상 가난하여 빈궁한 상태이지만 당신이 편안히 여기시니, 저도 편안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吾家貧, 曹氏至勞悴而曰: “夫子士人也, 吾士人妻. 貧約常也, 夫子誠安之, 吾亦安.”) (정범조, 『孀人曹氏墓誌銘』, 5:209)와 같이 남편의 안빈을 지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내의 의무였다.
- 9) 청빈의 선비 문화와 치산을 위한 여성의 노력에 대해서는 최기숙(2007), 187~192쪽을 참조.

몸소 불 때어 밥했습니다(黔婁窮士, 妻賢忘貧, 冀缺農夫, 妻敬如賓, 有案齊眉, 有躬執爨.). (李眞望, 『寄室文』, 4:94)

여성이 가난에 초연할 수 있었던 데에는 빈부를 운에 달렸으므로, 부를 추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론이 작용했다(①). 또한 빈부에 초탈한 삶을 살았던 역사적 인물을 고사로 인용하면서(②), 이를 일종의 전범으로 만들려는 문화적 흐름이 작용했다.

③ 연줄로 벼슬을 청하는 자들은 바로 엄격하게 꾸짖고 내쳐 끊었으며 과일이나 작은 물건들도 경솔히 받지 않으시니 사람들이 모두 경외하며 칭송하여 “상공뿐 아니라 그 부인의 청렴함도 세상에 드문 것이다.”라 하였다. 서로 경계하여 감히 망령된 부탁이나 사사로운 청탁을 감히 하지 못하니 이로 인하여 선친의 지위가 삼공에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집안은 영락하기가 마치 빈한한 선비의 집과 같으니 한 시대의 모범이 되었다(有夤緣干請者, 輒峻責而斥絕之, 時果微瑣之物, 亦不輕受, 人皆敬畏而稱歎之曰: “非獨相公也, 乃其夫人之清, 世所罕聞.” 至相戒毋敢妄干私囑, 由是先君位極三旌, 而門庭冷落, 如寒士家, 一時以爲矜式.). (李宜顯, 『先妣貞敬夫人迎日鄭氏行狀』, 7:323)

청렴한 남편이 벼슬자리에 올라 청탁을 물리치고 올곧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부인의 내조가 필요했고(③), 아들에게 청렴결백을 가르쳐야 하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실천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가난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은 환로에 나간 남편/아들을 ‘영똥한 길로 빗나가게’ 하는 태도였으며,¹⁰⁾ 뇌물을 받아 부당 이득에 마음을 두게 하는 타락의 원인으로 간주되다. 이에 따라 가난을 표 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어진(賢) 여성의 태도로서 요청되었다. 규문의 안에서 살

10) 尹鳳九, 『貞夫人李氏墓誌』, 2:97 등.

아가는 여성도 성리학적 이념이나 유교 제도의 뿌리 깊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가장 미시적이고 강력하게 이에 긴박되어 있었다. 또한 남에게 후하고 자신에게 박한 것(薄己厚人)을 존중하는 유교문화는 여성 스스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게 하는 문화적 토대로 작용했다.

④ 가난한 집의 부부는 원망이 생기기 쉬우니, 어찌 그리도 상서롭지 못함이 심한가? 어떤 남편은 스스로 살림을 꾸려 처자를 기르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아내 그 허물을 아내에게 돌리며 걸핏하면 옛말을 들먹이며 “집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눈에 띄게 그 아내를 싫어하며 버릴 뜻을 두니, 마음씨가 각박하고 윤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貧寒夫婦, 易生咎怨, 何其不祥之甚也. 或有丈夫不自營生, 以育妻孥, 反迺歸咎室人, 動稱古語 ‘家貧思賢妻’. 顯然有厭棄其妻之意, 心術之刻焉. 而倫紀之墜焉.) (李德懋, 『婦儀』 6:454)

④의 사례는 가난으로 부부의 의가 나빠진 경우를 소개한 것으로, 당시의 기록물로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 글에서는 빈천을 함께 한 조강지처를 내쳐서는 안 된다고 적었는데, 역설적으로 이는 가난이 가정의 화목을 깨뜨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바로 그 때문에 가난한 가문에서 ‘청빈’과 ‘절검’이 수양의 징표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봉제사, 접빈객, 효와 내조, 자녀 교육, 친인척에 대한 돌봄, 하인 관리 등, 가정 내 여성의 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다.¹¹⁾ 여성은 빈곤이라는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도 남편이 ‘청빈’을 유

11) 예컨대, 제사(奉祭祀)(金柱臣, 『亡嫂孀人羅州林氏墓誌』, 7:77; 李德壽, 『贈淑夫人全州李氏墓誌銘』, 4:140; 金昌翁, 『伯嫂貞敬夫人朴氏墓誌銘』, 1:65; 朴胤源, 『亡室行狀』, 6:329), 상례(喪禮)(李宜顯, 『淑人昌寧成氏行狀』, 7:342; 黃景源, 『貞夫人李氏墓誌銘』, 8:88), 효(奉養): (南有容, 『兄嫂令人延安李氏墓誌後記』, 3:292), 손님대접(接

지할 수 있도록 가난을 타개할 의무를 부여받았으며, 그것을 해내는 여성을 치하하고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그러한 의무를 여성 스스로 용인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여성의 생활 기록에서 ‘가난의 징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간주하는 시선과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여성이 가난으로 인한 배고픔과 무리한 노동, 그러면서도 가정의 의무를 해야 하는 고통과 상처를 표현할 통로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락시키고 있었다.

⑤ 아버지께서는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로는 집안일을 제쳐둔 채 묻지 않으셨고 집은 또 매우 가난하여 곡간에는 생계를 유지할 곡식이 없었는데 어머니께서는 방도를 마련해서 아버지를 번거롭게 하지 않으셨고 불초한 나는 오곡을 분간하지 못한 채 학업에만 전심하여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우리 집안을 지탱한 것은 실로 어머니께서 이루신 일이다. (정범조, 『先妣貞夫人行狀』, 5:239)

⑥ 먹는 것이 정결하고 차림새가 깨끗하니 사람들은 실로 살림이 몹시 기우어 가난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人見其餐潔著鮮, 不知夫中實貧匱之甚.). (任希聖, 『先妣墓誌』, 『在澗集』, 8:301)

가난해도 한탄하는 말을 하거나 표정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었으며¹²⁾, 남편이 끝내 가난하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을 빈치가 취해야 할 최고지선의 미덕으로 간주했다.¹³⁾ 그 결과 남편과 아들은 과거급제의 여부와 상관없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다(⑤).¹⁴⁾ 남편은 아내가 사망한 뒤에야 아내가 가난을 지탱하기 위해 했던 노고를 짐작했으며, 때 늦은 후회

賓客): (俞漢萬, 『先妣行狀 戊寅』, 2:557), 내조(韓元震, 『淑人黃氏墓誌銘』, 2:53; 蔡濟恭, 『祭亡室贈貞夫人吳氏墓文』, 5:23; 李緯, 『孺人潘南朴氏墓碣』, 4:437; 宋德相, 『孺人臨氏墓碣銘 并徐』, 8:217), 자식교육(박윤원, 『外祖母貞夫人安東金氏行狀』, 6:336) 등.

12) 李喜朝, 『貞敬夫人尹氏行狀』, 1:242.

13) 徐命膺, 『贈貞夫人漆源尹氏墓誌』, 8:390.

14) 黃景源, 『淑人李氏墓誌銘』, 8:85.

속에 비로소 궁색함을 몸으로 감당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고는 했다.¹⁵⁾

가난을 표내지 않는 것, 가난에 근심이나 절망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여성 수양의 뚜렷한 징표로 간주되었으며, 집안의 궁핍함에 대해 가족은 물론 이웃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김으로써(⑥)¹⁶⁾, 여성은 온 몸과 온 생애를 통해 빈곤을 다스리고 극복해야 할 의무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리고 ‘검소’하며 ‘사치하지 않는 삶’을 지지하는 문화를 형성함으로써,¹⁷⁾ 여성으로 하여금 자기희생과 고생을 감수하는 삶을 지탱하게 하는 이념적 바탕으로 삼게 했다.

여성의 삶과 생애사 기록물에서 가난에 의연한 여성의 태도나 처신에 대한 서술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평범하다거나 당연한 자질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덕으로 평가할 만한 가치를 지닌, ‘기록으로 남겨야 할 만큼’ 어렵고도 희귀한 자질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2.2. 가난을 잊지 않는(不忘貧) 미덕: 언제나 부유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가난의 징후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부유함의 징표인 사치와 과시 또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부유하더라도 검약한 것을 강조함으로써, 부가 인격을, 사람을, 문화를 잠식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려는 지향성을 유지해 왔다. 말하자면 경제력이란 사람이나 집안의 분위기를 통해 표현되어서는 안 되는 문화적 징표이자 수양의 척도였다. 이는

15) 林象德, 『生妣恭人全州李氏行狀』, 6:231.

16) 이웃에 가난을 드러내지 않은 사례는 송덕상, 『孺人玄氏墓誌銘 并序』(8:221) 등에도 보인다.

17) 사치를 멀리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간 여성의 자질을 강조한 글로는 申暲, 『贈貞夫人李氏行狀』(3:209), 李宗城, 『先妣南陽洪氏言行錄』(3:152); 李宜顯, 『淑人南陽洪氏墓誌銘 兵書』(7:257); 이의현, 『贈貞敬夫人青松沈氏墓誌銘 并序』(7:259); 이재, 『伯舅母貞敬夫人延安李氏行狀』(6:107); 趙泰采, 『亡室贈貞敬夫人青松沈氏墓表』(7:57); 李喜朝, 『貞敬夫人蔡氏行狀』(1:247)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검소, 검약을 존중하는 문화적 풍토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타인이 누리는 부귀함을 부러워하는 것도 경계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바탕에는 ‘물욕’을 경계하는 문화와 인식이 작용했다.¹⁸⁾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가난을 통과하거나 극복하여 부자가 된 후에도, 이전의 가난을 잊지 않고 검약을 지키며 청빈을 실천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⑦ 또한 세속의 사치한 습속을 가장 싫어하셨으니, 이미 귀해지고서도 오히려 화려한 것을 쓰지 않고 모든 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검계에 있었을 때 일찍이 하루 동안 먹지 못하고 베틀 옆에 한참 동안 엎드려 있었다. 깨어나 보니 베틀 옆에 콩죽이 있었다. 세 번 마시고서야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으니, 마을 할머니가 불쌍해서 주신 것이었다. 내가 지금 편히 앉아서 밥을 먹고, 고기도 먹을 때가 있다. 그러나 먹을 때마다 검계에 있을 때를 잊을 수 없었다. 또 내가 다른 재능이 없고 스스로 베짜기에 힘써서 애쓴 지 40여 년에 겨우 집안 재산을 이룰 수 있었다. 시집가고 장가보낸 자녀와 손주들, 조카들이 거의 스무 명인데 오직 근검으로만 다 할 수 있었다. 집안의 흥망은 부지런하고 태만함, 사치와 검소가 어떠한가를 돌아볼 뿐이다. 너희들은 그를 명심하여라.”고 하였다(又甚惡世俗奢侈之習, 既貴猶不御華靡, 謂諸女曰: “吾在儉溪時, 嘗不食一日, 伏緯機傍良久乃寤, 有藿粥在機下. 三啜而後目有所見, 盖里媪憐而餉之也. 今吾安坐而食, 食有餘肉, 然每食未嘗忘儉溪時也. 且吾無他才, 能起自紡績, 積苦四十餘年, 僅就家業, 嫁娶子女孫子女諸侄諸甥者殆二十人, 惟勤儉而致之耳. 人家興亡, 顧勤怠奢儉之如何耳. 汝曹其戒之.”) (南有容, 『貞夫人完山李氏行狀』, 3:317)¹⁹⁾

18) ‘타고난 성품이 물욕에는 담담하여 남들이 화려한 의복과 반짝이는 패물장식을 한 것을 보아도 한 번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다.’(이덕수, 『亡女沈氏婦壙誌』, 4:115)와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19) 그밖에 李萬敷, 『祖妣貞敬夫人朔寧崔氏墓誌』, 7:231; 조현명, 『亡室金夫人墓誌銘』 (3:40); 이덕수, 『先妣行錄』(4:179); 이재, 『伯姑貞敬夫人李氏行狀』(6:100) 등의 사

가난한 때의 근검을 잊지 않고, 부자가 된 후에도 검약을 지켰던 것은 근검을 여자의 수양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며, 가난을 기억하는 것을 ‘검손’으로 인식하는 시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부귀빈천은 ‘검손’과 ‘수양’을 갖춘 자라면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⑧ 숙인이 시집갈 당시, 집안이 넉넉했으나 호군공께서 검소함을 주장했기 때문에 혼수로 보내는 옷이며 이부자리는 무늬 있는 비단을 쓰지 않고 무명을 썼으며, 폐백상자를 매는 장식은 삼끈을 엮어 큰 주머니로 만들었다. 시댁 부녀자들과 여종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으나 숙인은 태연히 계면적은 기색이 없었다(淑人始嫁, 家雖饒而以護軍公之尙儉也, 資送衣裳, 不用文錦, 而用縣布執笄之裝, 結麻繩爲大袋. 舅家婦女及婢妾, 皆指笑之, 淑人夷然略無慊色.). (이덕수, 『淑人林氏墓誌銘』, 4:156)²⁰⁾

특히 부유하게 살다가 가난한 집에 시집을 때는 혼수를 사치스럽게 하지 않는 것을 예의로 여겼으며(⑧), 가난한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부유했던 처녀시절의 태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미덕으로 간주하고 이를 치하하는 언술 구조가 생성되어 있었다.²¹⁾ 이는 ‘교만하지 않음(無驕)’, ‘게으르지 않음(無惰)’, ‘욕심이 없음(無慾/淡)’, ‘변화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不喜紛華)’, 검소함(儉約) 등의 어휘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어렵지

레가 있다.

20) 그밖에 부유하게 자랐으나,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가난을 다스린 사례로는 金樂行, 『孺人金氏行錄』(8:29); 尹光紹, 『貞敬夫人趙氏行狀 辛丑』, 8:48; 윤봉구, 『從孫婦孺人吳氏墓誌』(2:120); 이재, 『亡室贈貞夫人海州吳氏墓誌』, 6:86; 황경원, 『又祭亡室貞敬夫人沈氏文』(8:105); 이의현, 『淑人潘南朴氏墓誌銘 并序』(7:283); 이의현, 『季妹貞夫人墓誌』(7:305) 등이 있다.

21) 예외적으로 부유한 친정의 도움을 받되 먼저 요청하지 않은 사례가 임희성, 『亡室淑人宜寧南氏墓誌』(8:306)에 전한다. 그밖에 가난한 시댁을 위해 친정에게 도움을 청한 여성의 사례가 있다. 부유한 집 외동딸이었던 임씨가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온 뒤에 친정 부모에게 시댁을 도와달라고 청했으며, 아버지가 친정 가까이 집을 지어주려 하자, 시댁과 친정의 중간에 집을 지어 달라고 한 기록이 전한다(李匡呂, 『林夫人傳』, 5:134)

않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그 이면에 친정에서의 부귀한 삶을 그리워하거나 지향하는 것, 또는 이에 견주어 혼인 생활을 반추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들이 모두 금기시되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빈부차이가 나는 시집살이를 관찰하는 사회적 시선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²²⁾ 아내가 손에 끼고 있는 금가락지를 보고 “당신은 선비의 아내로, 그런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오?”라고 하니 즉시 그것을 빼버렸다.²³⁾는 기록은 양반가의 청렴 통제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통제로 이어진 현황을 보여준다.

2.3. 빈곤의 감성 통제와 언어 규율: 말하지 ‘않은/못한’ 여성 가난의 징후

‘아아!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이다(嗚呼! 貧賤夫人之所惡也)’(남유용, 『祭一妹李氏婦文』, 3:256)라는 표현에 드러난 바와 같이, 가난은 모두가 꺼려하는 바였지만, 그것은 일반적 진술로는 허용되었을지언정, 특정인을 주어로 삼는 문장으로는 성립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누구나 싫어하는 가난에 대한 공감은 존재했던 것과는 달리, ‘누군가’ 가난을 싫어했고, 나아가 이를 표현했다면, 이는 덕이 없는 자, 수양을 갖추지 못한 자의 어리석고 졸렬한 행실과 태도로 간주되어, 사회적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이러한 언술적 관행 속에는 이미 ‘가난’에 대한 이중의 잣대가 작동

22) 물론 무조건 검소함을 치하하는 시선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며,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지나치게 검소하게 하지 않은 것을 가치화하는 미세한 움직임도 존재했다. 예컨대, ‘참판공의 집안 살림이 청렴하고 가난하여 부인이 손수 여공을 행했는데 부지런하여 그만두지 않았고, 옷과 먹을 것을 공급할 때는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지나치게 검소하게 하지 않았다(參判公家業清貧, 夫人手執女功, 孳孳不輟, 供給衣食, 不侈不儉.)’ (宋徵殷, 『叔母貞夫人全州李氏行狀』, 1:30) ; ‘자녀가 혼인할 때 혼수는 사치와 검박한 것 사이에서 중도를 지켰다(爲子女嫁娶婚, 具侈儉得中.)’ (박윤원, 『外姑孺人南陽洪氏行狀』, 6:346) 등.

23) ‘淑人嘗有金指環. 牧使公曰: “君士妻, 無乃不稱乎?” 卽亟去之.’ (유한준, 『淑人仁同張氏墓誌銘. 并序·庚戌』, 『自著』)

하고 있음이 고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빈곤(貧/困/窮/乏)을 직접 지시하는 대신 ‘청빈’이라는 용어로 완화시켜 사용하거나, ‘가난’의 피로도를 감추거나 극복한 ‘소박함(淸素)’, ‘청렴(淸廉)’²⁴⁾ 등의 대체 수사가 활용되었다. 그러나 가난으로 인한 수고로움을 표현할 수 없는 문화적 구조 때문에 여성은 혼자서 가난을 감당해야 했으며, 첫 번째이자, 유일한 희생자로 위치지어졌다.

⑨ 몹시 가난하여 동이와 상자가 깨지고 부엌이 텅 비어 숙인은 새벽부터 밤까지 비천한 일을 도맡아 손발이 지칠 때까지 움직여 남편을 공양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한겨울에도 옷이 없었고 조석으로 빈 사발 뿐이었다. 대개 그 가난함이 이와 같았지만 미간에 근심하는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고 실 한 터럭도 남에게 구걸하는 말을 하는 것은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궁핍한 것을 보면 비록 저녁밥 지을 쌀이라도 아까워하지 않았다.(貧甚矣, 盎篋破弊, 井臼疎落, 淑人蚤夜能鄙, 瘠羸其手足以供夫子. 而其自爲則盛冬無筥襪, 朝夕覆空盂. 盖其貧如此, 而眉間不掛憂愁色, 恥向人出絲毫乞語. 然見人乏, 雖夕米無恚也.)” (俞漢雋, 『淑人坡平尹氏墓誌銘 并序 辛酉』, 2:597)²⁵⁾

집안의 가난을 표하지 않게 관리하는 여성의 노력 덕분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가난의 부정적인 과장을 피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⑨). 아내/어머니의 내조와 뒷바라지 덕분에 남편/아들은 ‘마음이 번거롭지 않았으며’ ‘학업에 전념하여 과거’에 급제할 수

24) ‘재심(남편)은 또한 청렴한 선비로서 담박하고 욕심이 없어 일찍이 생업에 뜻을 두지 않아 가난하고 곤란함이 심했다. 그러나 유인은 시부모의 어짐을 기뻐하고 남편의 청렴하고 소박함을 공경해 항상 기뻐하는 얼굴빛이 있었고 원망하지 않으니 친척들 가운데 부인을 여질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在心又淸士, 泊然無慾, 未嘗留意生事, 盖其窮窶艱阨極矣. 然孺人樂有舅姑之賢, 而敬夫子之淸素, 常若有欣愉之色, 無所嗟怨, 親戚莫不賢之).’ (閔遇洙, 『孺人鄭氏墓誌銘』, 1:513)

25) 金聖鐸, 『先妣再葬日爲位設奠文』, 2:159 등.

있었고, 심지어 집안 경제에 마음을 두지 않고 ‘호연한 기상’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²⁶⁾

집안의 가난을 표내지 않았던 여성의 삶은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희생과 인내라는 감정이 뒷받침되어 있었고, 이것을 ‘부덕(婦德)’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대개의 글에서는 여성들이 가난과 고통의 징후를 ‘표 내지 않음’ 또는 ‘극복’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함으로써, 가난을 ‘처리’하기 위한 여성적 노력에 대한 세밀한 서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²⁷⁾ 역설적으로 이는 여성의 고통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나 인정구조가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이런 가운데 여성의 가난을 고통으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병의 원인이 되고 이른 죽음의 요인이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고, 한을 품게 된 사례가 고백된 것은 주목을 요한다.

⑩ 당신은 병들지 않았을 텐데 가난 때문에 병들었고, 당신은 죽지 않았을 텐데 가난 때문에 죽은 것이요. 결국 당신이 죽은 건 사람에게 달린 문체이지 하늘에 달린 일이 아니었소. 아아! 누가 당신의 죽음을 천명이라고 하겠소? 내가 실로 그렇게 만든 것이요. 아아, 애통하다. 내가 당신을 위해 슬퍼하는 것은 진실로 가난에 있지만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실로 가난에 있소(夫君未必病而貧而病, 君未必死而貧而死. 可以無死者存乎人, 而可以死者不存乎天. 則嗚呼! 孰謂君之死天乎? 吾實爲之也. 嗚呼哀哉! 吾之哀君固在貧, 而吾之重君實在貧.). (정범조, 『哭室人文』, 5:219)

⑪ 당신이 나에게 시집온 지 16년 내내 곤궁한 처지에 힘들고 고달파 병들었던 것이 다섯이요, 슬퍼하고 아파한 것이 넷이요, 미간을 펴고 활짝 웃었던 것은 하나나 들도 못 되요. 애써 부지런히 집안을 일구고 겨울에 대비

26) 沈鎬, 『先妣贈貞敬夫人李氏遺事』, 2:178.

27) 조선시대의 감정규율에 대한 일상과 경험 연구에 대해서는 최기숙, 『조선시대 감정론의 추이와 감정의 문화 규약: 사대부의 글쓰기를 중심으로』(『동방학지』 15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2), 4장을 참조.

하여 먹을 것을 비축했는데 다른 사람이 통발을 꺼내는 지경을 당하게 되었소. (이해조, 『祭亡室小祥文』, 7:48)

⑩에서는 아내가 가난 때문에 고생하다 병이 들어 죽었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심경을 표현했다.²⁸⁾ 이해조가 가난하게 살다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을 토로하는 과정(⑩)에서는 곤궁한 살림으로 고생한 아내의 삶이 세세하게 열거되었다. 이러한 열거와 묘사는 가난으로 인한 아내의 고통과 고생에 대한 공감에 바탕을 두었으며, 이에 대한 회한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 가계나 살림을 담당하는, 아내의 노동하는 삶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이끌지는 못했으며, 단지 아내의 성품이나 덕으로 이해하는 ‘수양’에 대한 치하로 이어졌다.

⑫ 선조에 제사하고 어른을 받들며 집안을 건사하는 온갖 일들을 안인은 실로 혼자서 도맡았는데, 의지와 힘을 다하느라 밤낮으로 힘들어 초췌해져 고생이 극에 달해 어찌다 걱정하고 탄식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凡祭先養老, 幹家百職, 安人實獨自擔當, 竭志殫力, 日夜勞悴, 困苦之極, 或時有感嗟之言.) (李東, 『亡室安人尹氏行狀』, 4:324)

⑬ 나는 늘 내 높은 지위와 資級으로도 어찌 너의 세 아들과 바꾸겠는가 하고 생각했었다. 너는 “너무 가난해서 아들 셋을 입히고 먹을 것도 없으니 기쁜 줄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었지. (余每以爲以余之崇班資級, 何以換妹之三子也. 妹則曰: “貧甚無以衣食三子, 不知其爲喜也.”) (蔡濟恭, 『祭外從妹尹氏婦文』, 5:40)

이간(⑫), 체제공(⑬)의 글을 보면 여성 스스로 간고함을 탄식하거나 그로 인한 고통을 토로한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간이 이를 구태여 기록한 것은 가난에 시달리는 아내의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이며, 제대

28) 유사 사례로 송환기, 『祭亡室成氏文』(5:372); 李海朝, 『祭亡室小祥文』(7:48); 宋相琦, 『先妣行狀』(1:273) 등이 있다.

로 된 옷 한 벌 입지 못하고 끼니를 굶으며 고생했던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 체제공의 사촌여동생은 가난 속에서도 아들 셋을 훌륭하게 키운 것을 칭찬하자, 가난해서 먹지도 입지도 못하니 기쁜 줄을 모르겠다고 한 응답을 통해, 가난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표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희소한 사례에 속했으며, 가난 속에서도 아들을 성공시킨 여성의 덕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용납될 수 있었던 문장이었다.

3. 勸貧·克貧·治貧: 주체가 되지 못한 여성의 경제와 노동

가난한 가계의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고생스러움이나 구차함 등, 가난의 징후를 드러내서는 안 되었던 여성들이 어머니와 아내, 며느리와 이웃으로서 도리에 맞는 처신을 해 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가계를 책임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바탕이 되었다. 이 장에서는 가난을 견디고 다스리며 이겨낸 여성의 생활과 생애사 기록을 통해 사대부가 여성의 경제활동의 현황과 이에 대한 역사문화적 인정구조를 가계·살림·노동의 차원에서 조명한다. 이때 18세기라는 역사적 시기에 가난한 집안의 여성이 개인의 축재를 지양하며 이웃과 공생의 미덕을 내면화해온 내력을 재구하고, 그러한 행위가 갖는 역사·문화적 함의에 대해 성찰해 보고자 한다.

3.1. 가계와 살림으로서의 빈곤 관리

19세기 여성 생애사 자료에는 여성의 노동과 치산에 기록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²⁹⁾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치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18세기와 달리 어느 정도 인정되고 권장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그

29) 홍학회 외, 『19세기, 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1~9권(보고사, 2013)을 참조.

러나 18세기의 자료를 통해서서는 치산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문헌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대부의 생애사 기록을 문면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성의 노동과 경제 활동에 대한 추이를 사실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글쓰기의 제도적 성격(사대부/남성/한문), 당대의 지배적 이념(유교), 여성의 역사문화적 위치(하위주체)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때 기록의 정확성을 역사문화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시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문맥의 이면에 드리워진 여성 노동과 경제활동에 대한 충분한 인정과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생애사 성찰의 글쓰기라는 양식적 특성, 여기에 여성의 생애에 대해 '기록할 만하다'고 판단한 '가치'의 내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한다면 가난한 집안의 여성이 궁핍을 '포 내지 않'기 위해, 살림과 노동에 헌신했다고 기록한 자료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동시에 그러한 기술의 초점이 전적으로 재산의 축적이나 가산의 경영, 즉 '치산(治産)'이 아니라 가난을 기꺼이 감수하고(甘貧), 다스리며(治貧) 이겨내는 데(克貧) 맞추어져 있다는 방향성에 대한 해석적 고려가 필요하다.³⁰⁾

여성이 가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식은 노동이었다.³¹⁾ 그러나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유한 친정에서 재산을 받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친정이 부유하더라도 혼인 후에는 시댁의 경제적 조건에 맞추어 생활해야 했음이 강조되었다.³²⁾

30) 김경미는 18~19세기 자료를 대상으로 여성의 가내 노동이 가정 경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업 등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고, 양잠과 방적 등을 통해 국가 경제와 관련된 노동활동을 수행했음을 논증한 바 있다(김경미,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 18~19세기 양반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권 4호, 2012)

31) 여성이 노동으로 가계를 꾸린 사례는 李緯, 『淑人安東金氏墓誌』, 6:53; 金鎭圭, 『祖妣行狀拾遺錄』, 1:447; 조귀명, 『淑夫人趙氏墓誌銘』, 1:464; 李匡德, 『貞敬夫人慶州李氏墓碣』, 2:210; 尹光紹, 『亡室貞夫人韓氏墓誌 丙申』, 8:41 등에 보인다.

32) 이에 관해서는 이 글의 2.2절을 참조. 흥세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란 딸이 가난한 집으로 시집가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도 도와줄 수 없는 친정아버지의 애통함을

이에 따라 여성은 길쌈과 누에치기, 절구질, 샅바느질, 가축 기르기 등의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 궁핍한 살림을 이어갔다.³³⁾

때로는 노동을 통해 재산을 모으기도 했지만, 이는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데 그쳤을 뿐, 부유함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비록 얻을 수 있어도 의롭지 않으면 바로 물리쳤고, 베푸시고 싶으면 나누어 주었고 저장해 두었다가 팔아서 장사할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³⁴⁾는 언급은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이 최소의 생계유지에 머물러있었을 뿐, 축재의 수준으로 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불문율에 지배되었음을 보여준다.³⁵⁾

또한 가난한 살림을 일으키기 위해 가장 먼저 자기희생을 해야 했던 여성은 화려한 치장이나 장신구를 하지 않는 소박한 삶을 유지하며 노동하는 삶을 살았다. 남성들은 바로 그런 여성의 삶을 기록할 만한 생애 내

표현한 바 있다(洪世泰, 『祭亡女李氏婦人文』, 1:167)

33) 이덕무의 글에는 여성 노동의 사례가 열거되어 있다: ‘길쌈하고 누에치는 일이 원래 부인의 본업이지만, 닭과 오리를 치는 일, 장, 초, 술, 기름 등을 파는 일, 대추, 밤, 감, 귤, 석류 등을 잘 저장해두었다가 때를 기다려 나다 파는 일, 홍화, 자초, 단목, 황벽, 검금, 남정 등을 사서 쌓아두는 일은 괜찮다. 그리고 도홍색, 분홍색, 송화황색, 유록색, 초록색, 하늘색, 작두자색, 은색, 옥색 등 모든 염색법을 배워 아는 것은 생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여공의 한 가지이다(紡績蠶繭固是本業, 至若牧鷄鴨, 沽販醬醋酒油, 又善藏棗栗·烏棹·金橘·朱榴, 待時而出, 又質積紅花·紫草·丹木·黃蘗·黔金·藍靛·知學·桃紅·粉紅·松花·黃油·綠草·綠天·青鴉·青雀·頭紫·銀色·玉色諸染色法, 非惟有補於生計, 亦是女功之一端.)’ (이덕무, 『婦儀』, 6:450) 실제로 조선시대 여성이 경제활동과 상업활동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한효정, 『17세기 전후 양반가 부인의 경제생활 연구』(성신여대 박사논문, 2007)을 참조.

34) ‘雖得而非義則却之, 雖有而欲施則散之, 不爲藏貯居賣而作業計.’ (金鎮圭, 『祖妣行狀拾遺錄』, 1:447)

35) 그러나 실제로 여성이 치산을 통해 가난을 극복한 사례도 찾아진다. 황경원(1709~1787)의 『孺人朴氏墓誌銘』에 따르면 부인이 치산으로 수천 냥을 모은 바가 있다(이는 김경미, 2012, 108쪽에도 언급되었다). 따라서 생계 이상의 치산을 경계했다는 표현을 사대부 글쓰기의 겸양이나 예법의 일환으로 해석할 여지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는 치산을 경계한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치산의 상한선에 대한 인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으로 서술하는 글쓰기 문화를 만들어갔다.³⁶⁾ 여성의 치장에 대한 통제는 ‘빈곤관리’를 유지하는 여성에게 일종의 의무로 가해진 풍속의 시선이 었다.

가난한 집안의 여성은 가난 때문에 생활과 이상이 잠식되지 않도록 삶의 질을 지켜야 할 의무를 암묵적으로 부여받았다. 가난을 고생스럽지 않게 장식하는 것은 ‘안빈낙도’나 ‘청렴’이라는 윤리와 이념, 가지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는 노동을 통해 가장과 가족(孝/慈)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했던 여성의 노동이었다.

⑭ 어떤 종친이 통천에게 현명한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딸과 혼인시키려 하였다. 통천이 웃으면서 숙인에게 “나는 가난한데 허락한들 무엇이 나쁘겠소?”라 하였다. 숙인은 이를 사양하며, “중실의 여인은 유가에서 모실 사람이 아닙니다. 제게 열 손가락이 있으니 샅바느질을 하더라도 굶지는 않을 것인데 어찌 지체 높은 집안의 사돈이 되어 그 부유함에 의존하겠습니까?” 하니 통천이 낮빛을 고쳤다(有一宗室, 聞通川之有賢子也, 欲以其女妻之. 通川笑謂淑人曰: “吾貧矣, 許之何傷?” 淑人辭曰: “宗室女, 非儒家之所宜取也. 吾有十指, 鬻鍼縫, 必不饑餓, 豈可與公子之家爲姻婭, 藉其侈富乎?” 通川爲之改容.). (黃景源, 『淑人李氏墓誌銘』, 8:85)

⑮ 평상시에는 근검하였고 그릇이나 쓸거리 등도 완비하였다. 하지만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것은 좋아하지 않았다. 삼실을 끄는 것을 직접 날마다 열심히 했는데 나이가 들어 늙을 때까지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도 규모와 법도가 있어 절약함으로써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하였고, 각각 꼭 써야할 데에 쓰고 반드시 나머지를 남겨 두었다가 불시에 써야 할 것으로 준비해 두었다(平居惟尙勤儉, 器用苟完已. 而不喜華侈. 手治麻枲, 日孜孜至老不廢, 理產有規度. 以約敵豐用, 各有攸當, 必留贏羨, 以備不時之費.). (金載瓚, 『淑夫人金氏墓誌銘 並序』, 3:632)

36) 宋徵殷, 『叔母貞夫人全州李氏行狀』(1:30); 이덕수, 『沈淑人墓誌銘』(4:119) 등.

황경원의 글(⑭)에 서술된 바와 같이,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했던 여성이 노동을 통한 경제력 확보에 자신감을 드러낸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가난한 집안 형편이 나아졌을 때, 이를 벼슬 덕분이라고 보는 사회적 시선을 무마하기 위해 아내의 힘이라고 변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정도로 여성의 경제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 구조도 형성되어 있었다.

김재찬(⑮)의 사례는 여성이 치산을 하여 가계를 일으킨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19세기와는 달리 18세기에 이러한 자료는 매우 희소했으며, 대체로 여성의 경제력은 재산을 축적하는 ‘치부’의 수준이 아니라, 가난을 다스리는 ‘치빈’의 수준을 지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회적 시선에 규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는 생애사 성찰의 글쓰기라는 장르의 문화제도적 위치로부터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적인 글쓰기 양식이었던 일기를 사료로 삼은 연구를 통해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노동, 치산 등이 보다 자유롭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³⁷⁾ 따라서 여성의 치산과 노동

37) 한효정은 17세기 양반가 여성 貞敬夫人 南平 曹氏(1574~1645)가 한글로 쓴 일기인 <內子日記>와 默齋 李文樞(1494~1567)의 <默齋日記> 등 일기자료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연구했다. 본고와 한효정의 연구가 여성의 경제와 노동에 대해 다루면서도 이에 대한 해석의 결과가 본 논문과 다른 것은 17세기와 18세기라는 연구 시기의 차이와 더불어, 사적 글쓰기라는 ‘일기’와 제도화된 글쓰기 양식이었던 ‘생애사 글쓰기’라는 ‘텍스트’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생애사 글쓰기는 비록 가족과 지친을 중심으로 쓰고 읽혔지만, 문집에 실려 ‘공적인 유통’ 경로를 가졌기 때문에 당대의 지배 이념과 통념, 사회적 시선에 보다 긴박되었다. 반면, 사적 글쓰기인 일기에서는 보다 자유롭게 사실적인 생활 기록이 남겨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을 발표한 학술대회(각주 1)에서 토론을 맡은 이성임 교수도 조선시대 남성의 일기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했으며, 가난에 대한 고통을 표현하거나 치부를 과시한 경우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일기=사적 글쓰기=일상 기록’, ‘생애사 양식=제도화된 문’이라는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예와 교양이라는 통제 요소가 보다 강하게 작용했으며 ‘가치의 기록’이라는 양식적 특성이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룬 1063편의 글을 통해 이러한 시선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경제에 대한 이념적 통제라는 요소를 외면한 채, 이를 해석 오류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또한 사료와 문학적 해석의 대상으로 다룰 때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필자는 근본적으로 모든 텍스트는 ‘해석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에 ‘가치’를 부여하는 권한을 ‘글쓰기’가 사대부 남성에게 독점되었을 때의 역사적·문화적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세상의 부인들은 몰래 몰래 돈 모으는 일에만 신경을 썼지 문필에 종사하는 이가 드물다.”(이덕수, 『御贊貞明公主墨跡跋』, 4:104)라는 표현은 세간에 ‘치산’에 관심을 두는 여성이 존재했음을 시사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시선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³⁸⁾

3.2. 비-축재, 비-소유의 여성 자산

역사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양반층 여성은 경영형에서 생계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활동을 했으며, 여기에는 양반층 여성의 재산권을 보장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했다. 양반가 가정에서 경제는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조선전기에는 자녀균분 상속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독자적인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재산과는 독자적으로 관리되었기에, 여성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권을 장악하면서 폭넓은 경제활동에 종사했다.³⁹⁾ 특히 가장이 본가를 떠나 외지로 떠난 경우에는 여성이 농업경영 자체를 전담했으며, 토지 매매도 직접했을 뿐더러, 개간 사업을 주도하기도 했다.⁴⁰⁾

그러나 사대부가 쓴 여성 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다면, 조선시대 여성은 가계를 위해 노동하는 삶을 권장 받았지만, 그것이 치부의 수준에 이르거나 사유재산의 축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문화적 맥락 속에 놓

38) 김경미는 실제로 조선시대 여성이 생산 노동적 측면에서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해석하고, 행장이나 묘지명에서 방적을 통해 살림을 일으킨 것을 기록한 것 자체가 여성에게 방적을 권장하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았다(김경미, 2012, 101~102쪽).

39) 한효정(2007), 2장을 참조. 논자는 부유층 여성은 관직과 인맥을 통해 대외적 경제활동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했으며, 가산이 적었을 경우에는 직접 노동하는 생계조달형 노동을 했다고 한다(29~34쪽). 이 논문의 3장에 따르면 양반가 부인들은 토지 매매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40) 한효정(2007), 47쪽; 57; 71쪽.

여 있었음이 발견된다. 청빈과 검약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치스럽고 화려한 삶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부귀하더라도 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지향했으며, 여성이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것을 가치화하는 문화적 시선을 유지했다.

⑩ 아버지께서 관장한 임무가 많고 녹봉이 제법 후했으며 또 사망에서 절기마다 관례에 따라 바치는 것도 많았다. 그러나 부모님이 드시고 사당에 바치는 것 외에는 저축해 두었다가 묘역(墓役)에 필요한 데 보충하였으니 집안의 재산은 조금도 불어나는 것이 없었다. 어머니는 밥상에 두 가지 이상의 반찬을 놓은 적이 없고 옷은 항상 더럽고 해졌지만 또한 편안하게 여기셨다. 계미년(1703)에 아버지가 1품에 오르니 어머니는 정경부인의 작호를 받으셨다. 인주(人主)의 신하로서 이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인데 그때 나가서 아버지를 뵈니 한미한 선비일 때와 마찬가지로, 들어가 어머니를 뵈니 내명부에 오른 귀한 분인 줄 모를 정도였다(先君子管諸司多, 月俸頗厚, 又四方有時節例餉. 而親羞廟薦之外, 又蓄儲, 以補墓役之需, 家產無尺寸之長. 而夫人則案未, 嘗兼味, 衣恒至於垢弊, 亦怡如也. 癸未, 先君子陞一品夫人爵貞敬, 人臣之位, 蔑復加矣. 而當是時, 出而見先君子, 猶寒士之時, 入而見母夫人, 不知其爲命婦之貴也.). (金春澤, 『母夫人行錄』, 7:428)

김춘택은 아버지의 녹봉이 후했지만 부모 봉양, 사당과 묘역 관리 비용 이외에 재산을 축적하지 않은 점, 어머니가 검소하게 살림을 하여 한미한 선비와 다름없이 살았던 것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을 표현했다(⑩). 이는 사유재산을 축적하지 않는 것을 존경할 만한/기록할 만한 가치를 지닌 삶의 태도로 인식하는 문화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허용 가능한 여성의 자산관리(理産)의 상한선은 ‘생계유지’ 정도였다.

남유용과 이재형은 아내와 어머니가 친정 부모의 유산을 사양한 것을 미덕으로 기록했으며, 김창집은 혼인한 여자가 사유 재산을 모으지 않은

것을 미덕으로 기록했다.⁴¹⁾ 이는 여성이 돈을 모으더라도 이를 사유화해서 안 된다는 문화적 규율이 존재했음을 의미하며, 그 이면에는 혼인한 여성이 사유재산을 모으는 문화적 관례가 있었음이 암시되어 있다.⁴²⁾

⑰ 일찍이 호남의 농장을 처분하여 수백 금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이자를 놓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니 “돈이 새끼를 낳는 법은 없으니 빌려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자를 놓고) 빌려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하였다(嘗斥湖庄有數百金人, 有以子母債求者, 輒曰: “錢無生雛之理, 貸則可, 債則不可.”) (안정복, 『孺人竹山安氏墓誌銘 壬辰』, 8:262)

안정복(⑰)의 서술은 이자를 놓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을 반영한다.⁴³⁾ 이는 가난을 다스리되, 축재로 나아가지 않는 방향을 존중했던 문화적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덕무는 집안이 가난하면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여성의 소임을 인정했으면서도, 지나친 축재나 이자놀이, 형제간의 돈놀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士小節>, 『婦儀』, 6:450). 이는 역으로 여성이 친척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이자놀이를 하여 축재하는 문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고소설 <심청전>에서도 심봉사의 아내인 광씨 부인이 죽기 전까지 했던 주요한 경제활동중의 하나가 바로 ‘일수놀이’였다.⁴⁴⁾

그러나 이는 사대부 남성이 여성의 생애사 ‘가치’로 기록할 만한 대상으로 채택되지 않는 것은 않았기 때문에, 부수적인 기록으로 남아있거나 기록의

41) 차례대로 남유용, 『贈貞夫人豐山洪氏墓誌銘』, 3:276; 李載亨, 『生親孺人盧氏家狀』, 7:248; 金昌緝, 『亡女行狀』, 7:160. 혼인한 여성이 사유재산을 모으지 않은 것을 미덕으로 기록한 예는 김창흠, 『淑夫人青松沈氏墓誌銘』(1:61); 이덕수, 『淑人崔氏墓誌銘』(4:129) 등에도 보인다.

42) 부인 풍산 홍씨가 오빠인 낙정공에게 친정 부모의 유산을 분배받고 이를 사양하다가 장조카에게 물려주고 이를 ‘문서화’했다는 것은 가족간의 재산 분쟁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사례이기도 하다(남유용, 『贈貞夫人豐山洪氏墓誌銘』, 3:276).

43) 이자놀이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李緯, 『先妣墓誌』(6:77)에서도 발견된다.

44) 이에 관해서는 최기숙(2007), 189쪽의 각주 7)을 참조.

문면 자체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성은 가계를 도맡아 가난을 극복할 책임은 부과되었지만, 노동을 통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정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더구나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자산가로서의 지위는 획득할 수 없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3.3. 가난과 공생의 미덕, ‘돌봄/베픔’이라는 여성의 사회적 책무

18세기 여성의 삶과 생애에 대한 기록을 통해, 집안이 가난한 경우에도 사대부는 타인에게 ‘베푸는 것’을 일종의 사회적 의무로 깊어지면서 공생하는 태도를 미덕으로 간주하는 문화를 형성했다. ‘베픔’과 ‘돌봄’은 빈부를 막론한 사대부가의 교양이자 사회적 의무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대부의 글에서는 집안이 가난하면서도 궁핍하고 곤란한 이웃과 지친을 돕는 행위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베픔’에 대한 사회적 인정 구조를 형성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주체를 ‘여성’으로 기술함으로써, 가난에도 구차하지 않고, 가난에도 빈궁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일종의 공생의 의무로서 여성에게 부과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여성의 생활사 기록에는 ‘가난한 친척과 이웃’, ‘과부’, ‘재난을 당한 이’에게 재물을 나누어주고 돌봄을 실천했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⁴⁵⁾ 그 중에서도 가난한 친척의 혼례와 상례에 도움을 주었던 일을 빠짐없이 기록했으며, 같은 경우에 처한 이웃과 가문으로 엮이지 않더라도 아낌없이 돕는 것을 ‘기록할 만한 미덕’으로 간주하는 문화를 형성해 왔음이 확인된다.⁴⁶⁾ 이는 ‘의를 귀하게 여기고 재물을 하찮게

45) 이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자선이 행해지기 이전에 지역과 친족 단위의 ‘돌봄’과 ‘베픔’의 윤리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난한 친척에 대한 돌봄/베픔의 사례는 송징은, 『祭亡女文』(1:25); 조태억, 『淑人光州金氏墓誌銘』(4:291); 김재찬, 『姊氏墓誌銘』(3:620) 등을 참조. 가난한 이웃을 도운 사례는 김창집, 『淑人豐壤趙氏行狀 代作』(7:151) 등이 있다. 그밖에 구걸하는 사람을 돕는 사례(윤봉구, 『孺人朴氏行狀』, 2:143)도 기록되었다. 도와주거나 빌려준 품목은 식품, 의류, 화장품 등이다.

여겼기(蓋其貴義賤財如此)’(김창흡, 『淑人寧越辛氏墓表』1:89) 때문이었으며, 궁핍한 사람에 대해 자신이 아픈 것처럼 대하는(見人窮乏, 若痛癢在身),(최창대, 『貞敬夫人尙州黃氏墓碣銘 甲申』, 7:400) 인(仁), 곧 공감적 관계를 존중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중을 위해 조금이라도 계산하며 남겨두는 것’(말하자면 근대적 의미에서의 ‘저금’)은 지양해야 할 태도로 간주되었다.

⑱ 대개 베풀기를 좋아하고 궁한 자들은 더욱 도우셨다. 주린 자, 추위에 떠는 사람을 보면 측은해 하지 않은 적이 없으시니 옷을 벗어주고 음식을 밀어주면서도 마치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는 듯이 하셨다. 이 때문에 이웃 마을의 부녀자나 할머니들이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유인께) 고하였다. 한 노파가 집이 매우 가난했는데 몇 년 동안이나 (살림을) 갖추어 (부업에) 불을 피우고 몸을 가릴 옷을 마련해 주었다. 그 노파가 죽을 때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우리집이 지금까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아무 덕에서 구휼해 주신 힘 덕분이다. 너희들이 만약 이 은혜를 잊는다면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 하였다. 유인은 평소에 청렴하고 깨끗하였으며 재물에 대해서 초탈하여 얽매인 바가 없었다. (汎喜施而尤恤窮. 見飢者寒者, 未嘗不惻然, 而解衣推食, 如恐不及. 以此隣婦里姥有急輒告. 有一老嫗家甚貧, 待而舉火掩體者蓋有年. 其將死, 謂其子女曰: “吾家之至今得免墳壑者, 全賴某宅救恤之力. 汝輩若忘此恩則必有災殃也.” 孺人素廉潔, 於財脫然無所累.). (李載亨, 『生親孺人盧氏家狀』, 7:247)

⑲ 부인이 베풀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인색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베풀기를 좋아하여 비록 남에게 칭송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가장이 맡긴 재물을 써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 친척이나 이웃에 가

46) 그밖에 가난한 친척과 이웃을 도운 사례에 대한 기록으로 김창흡, 『伯嫂貞敬夫人朴氏墓誌銘』(1:65); 조태억, 『淑人南原尹氏墓誌銘』(4:278); 김창흡, 『淑人寧越辛氏墓表』(1:89); 최창대, 『貞敬夫人尙州黃氏墓碣銘 甲申』(7:400); 申靖夏, 『先妣恭人全州李氏行狀』(6:180); 李緯, 『先妣墓誌』(6:77); 이덕수, 『貞敬夫人全氏墓誌銘』(4:166) 등이 있다.

난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가장에게 알리고 베푸는 것이 옳다(婦人之喜施與, 非好消息也. 非其吝之謂也, 喜施與者, 雖得稱譽於人, 家長所托之財, 不可耗費也. 若宗族隣里之貧乏者, 必告家長而周之可也.) (이덕무, 『婦儀』, 6:434)

이재형의 사례(⑱)는 어려운 이웃을 도운 어머니에 대해 은혜를 입은 마을의 노파가 후손에게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유언을 남긴 사례이다. 남에게 베푸는 것은 부유한 양반층의 특권적 시혜가 아니라 빈부를 가리지 않고 사대부가 보편적으로 행해야 할 사회적 의무였다. 그러나 이덕무의 서술(⑲)에 보이는 바와 같이 남을 돕는 일을 지나치게 하여 가정의 재물을 소비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생겨났다. 이는 타인을 돌보는 일이 지나칠 경우, 칭송을 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당시에 이미 그러한 폐해가 문제적으로 제기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4. 빈곤과 여성 교양, ‘기적’ 또는 ‘묵음’의 수사학

조선시대의 여성에게는 당시의 제도적 문자였던 한문을 읽고 써서 자기생애를 기록할 교육과 문화적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남성-가족’의 인정구조 속에서 생존해야만 자기의 삶의 기록을 남겨 ‘자기의 역사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정에 대한 헌신을 글로 남겨 가치화하려는 움직임도 철저하게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여성은 가족제도 속에 더욱 긴박되었다. 이 장에서는 남성의 기록에 남은 여성의 경제적 노동과 빈곤 관리를 ‘수사학’이라는 문학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그 문화사적 의미를 살피고, 이에 대한 성찰적 비평의 관점을 생성해 보고자 한다.

4.1. ‘다른’ 삶에 대한 요구, ‘세속의 부녀와 다르다’는 평가의 이면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노동이나 경제적 능력을 표현하는 충분한 어휘나 언어적 표현, 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의 생활력이나 경제력, 나아가 이를 표 나타지 않게 드러내는 여성의 힘에 대한 충분한 인정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여성의 뛰어난 행실이나 품성, 능력을 기술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된 어휘는 그 여성이 ‘세속 부녀와 다르다’는 것이었다.

⑳ 어머니는 성품과 도량이 넓고 바르며 식견과 사려가 통달하여, 어렸을 때부터 이미 세속의 부녀자들의 용렬하고 소소한 행실을 좋아하지 않았으니 기상과 포부가 사나이 장부와 같았다. 제사를 모시고 술과 장을 담그는 일부터 바느질하는 소소한 女工에 이르기까지 모두 배우지 않았지만 능숙하였다(先妣性度弘正, 識慮通達. 從幼少時, 已不喜世俗婦女庸碌猥瑣之行, 氣象範圍, 若丈夫男子, 於治籩豆議酒漿, 推及乎女工鍼縷之細, 舉不習而能之.). (任希聖, 『先妣墓誌』, 8:300)

㉑은 글쓰기의 대상이 되었던 가족이나 지친의 어머니, 아내, 할머니, 숙모, 고모, 며느리, 딸 등이 ‘세속의 부녀’와는 다르다는 비범성을 언급한 것들이다.⁴⁷⁾ 이는 글쓰기 대상 여성의 탁월함을 치하하고 기리기 위한 것으로 사대부 남성의 생애사 양식에서도 빈번하게 발견되는 ‘수사’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자신의 가족·여성의 ‘탁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세속부녀’ 일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세속부녀’와는 ‘다른’ 여성가족의 남다름을 강조해 가문의 영예로움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여성 일반’에 대한 폄훼의 맥락을 함축하게 되는 것이다.

47) 이 외에 朴弼周, 『祭六叔母恭人尹氏文』, 6:133; 閔遇洙, 『淑人李氏墓誌銘 并序』, 1:519; 송덕상, 『亡室李氏墓誌』(8:229); 박운원, 『淑人陰城朴氏墓誌銘 并序』(6:378); 김창집, 『淑人豐壤趙氏行狀 代作』(7:154) 등을 참조.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탁월성, 특히 경제 활동과 가계 운영, 빈곤 관리 능력 등에서 보이는 남다른 ‘차이성’의 이면에는 궁핍과 그로 인한 간고함을 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여성의 고통과 상처, 희생이 이를 유지하고 생성하는 비용으로 작용했다.

‘세속부녀’와 다른 품성과 행실로 기록에 남은 뛰어난 여성들은 여선비(女士), 여중군자(女中君子), 여장부,⁴⁸⁾ 옛날의 현인군자 등으로 불렸으며, 여성의 노동과 경제력, 빈곤관리 능력은 유순, 청덕, 온화한 덕성 등의 품성과 더불어 이러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자질로 포용되었다.

이익은 ‘부모가 아름다운 행실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은 지(智)가 아니며, 알면서 전하지 않는 것은 인(仁)이 아니다(父母有美而不知, 非智也, 知而不傳, 非仁也: 『李淑人行錄跋』, 6:206)’라고 했다. 이를 가족이 아닌 사회 전체로 확대시켜 본다면, ‘여성이 아름다운 행실이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문화는 ‘인’하지 않다. ‘어질다’고 번역되는 한자어 ‘인(仁)’은 현대적 개념으로는 ‘인간답다’는 ‘인문성’의 자질로 통용될 수 있으며, ‘측은지심’을 ‘인의 단서’로 본 『맹자』의 사례(惻隱之心, 仁之端)를 예로 든다면, 타인의 난처함에 대해 생각보다 먼저 몸을 움직이는 ‘공감 능력’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의 여성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제도적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삶은 그들을 가족으로 둔 상층 남성을 매개로 알려지는 것만이 허용되어 있었다. 이때, 여성적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상층 남성이었고, 이들이 여성의 삶을 깊이로부터 공감하며 충분히 헤아리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은 가치 있는 여성의 삶과 자질을 ‘시속 부녀와 다르다’는 ‘차이의 언술’만으로 재현한 것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48) 뛰어난 여성에 대한 찬사 중에 ‘엄격한 일처리는 장부처럼 의연했다(而處事之嚴, 毅然若丈夫)(魚有鳳, 『祭姑母貞敬夫人文』, 4:48),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을 한스럽다(恨其不爲男子)(尹東洙, 『舍妹孺人坡平尹氏墓誌』, 4:267), ‘(우리 둘째 누나가) 남자였다면 반드시 우리 집안을 크게 했을 것이다(使吾仲姊爲男也, 則必有以大吾家矣.)(朴胤源, 『仲姑淑人行狀』, 6:350)는 표현이 종종 발견된다. 이는 남성을 여성보다 우월하게 여겼던 역사문화적 조건에서 형성된 문화적 시선이자, 수사학이다.

이는 여성적 삶의 가치가 남성과 가족 제도 안에서 규정된다는 역사적 조건을 환기한다. 동시에 빈곤을 겪어졌던 여성의 노고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인정구조와 문화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수사적’ 차원에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사대부가 여성은 ‘세속 부녀자들과 다른’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했으면서도, 이를 스스로 자부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갖고 있지 않았다. 여성의 위치는 언어로 기록된 역사의 배면에서 ‘투명하게’ 존재함으로써 ‘부재하는 존재’의 위치를 차지했다.

4.2. ‘품성/인격’의 젠더 정치와 ‘언어’를 갖지 못한 여성의 삶

조선시대 여성문화가 충분히 전해질 수 없었던 이유는 첫째, 여성 주체가 자기표현의 적극적인 도구를 갖지 못했다는 역사적 조건에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여성에게 문자를 배우고 익혀서 자기 삶을 기록하고 전할 수 있는 문화자본의 습득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둘째, 당대 사회는 여성의 능력이나 삶, 문화와 역사를 표현할 충분한 언어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근검과 절약, 사치를 좋아하지 않은 소박함에 대한 여성의 지향과 실천은 ‘취향’이나 ‘기질’의 언어도, 경제적 언어로서도 아닌, ‘인격’이나 ‘품성’ 등의 어휘 범주 안에 포섭되어 재현되었다.

㉔ 문정공의 집안은 대대로 청빈하고 검약했는데 당신이 시집온 지 오래 되지 않아 원주공이 멀리 귀양 갔고, 이부인이 죽자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살면서 살아갈 방편이 없었다. 그런데 당신은 조용히 힘써 일하면서 바느질하거나 빨래하는 일들을 반드시 완벽하면서도 깨끗하게 했다. 남편과 자식들의 옷을 만들어 줄 때도 혹 걱정스럽고 난감한 것이 있어도 겉에 드러내지 않았다. 천천히 나에게 말하길, “저희 할아버님은 항상 손수 ‘인(忍)’자를 쓰셔서 저의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비록 불초하지만 어찌 감히 유훈을 본받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부인의 재주의 영민함과 성품의 고요함이

이와 같았다(文貞家世清儉, 而君結縵未久, 原州公遠配, 李夫人又歿, 君挈一婢以居, 無以爲資. 而能從容拮据, 裁縫澣濯, 必完而潔. 以衣其夫與子女, 又或可惱可悶有所難堪者, 而不發於色辭. 徐謂余曰: “吾大父嘗手書忍字賜吾母, 吾雖不肖, 豈敢不體遺訓?” 其才之敏性之靜類此). (김진규, 『亡室贈貞夫人完山李氏墓誌銘 并序』, 1:422) -가난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성품의 고요함으로 이해함.

㉔은 가난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고요한 성품으로 표현한 경우이다. 여성의 ‘맑은 덕과 아름다운 행실(淑德懿行)’에는 ‘검소’의 항목도 포함되었다. 특히 가난과 궁핍을 감내하고 다스린 여성의 경제력에 대한 언어가 부족한 결과, 이러한 여성들을 치하하는 언어는 ‘덕(德)’, ‘선(善)’, ‘인(忍)’, ‘공(恭)’, ‘성(誠)’, ‘정(靜)’, ‘인(仁)’, ‘현(賢)’, ‘온공(溫恭)’ 등 인성과 윤리를 지시하는 ‘자품(資品)’의 지시어로 환원되었다. 말하자면 여성은 어떠한 능력과 자질을 표출하든지간에 ‘윤리의 언어’로만 평가되었다.

가난에 대비하는 여성의 처신을 인성과 품성의 언어로 표현한 것은 여성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어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풍부한 어휘를 낳을 수 있을 만큼 여성을 인정하고 평가하는 문화적 토대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능력이나 생활력을 인정하는 어휘가 부족했기 때문에 ‘덕’이나 ‘인’이라는 윤리적 용어나 품성의 용어를 대체어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품성과 경제 능력은 사실상 범주가 다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당시에 사회를 통제하던 가장 강력한 범주였던 윤리의 도구를 빌어 이를 평가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내의 덕은 밖에서 징험할 수 있고 가정은 아내에게서 이루어진다. 밖으로 드러난 덕을 보는 것은 내정을 보기 위한 것이다(婦德徵乎外, 家政成乎內. 觀德於外, 所以觀內政也).’라는 성대중의 서술(『貞夫人洪氏哀辭』, 2:521)은 아내의 공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의미하지만, 그 이면에는 남편을 통해 확정되는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란 ‘매개적’인 것이며, 이에 따라 남성의 판단과 가치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중속적 위치’에 있었

음을 시사한다. ‘아아! 여자의 선함은 진실로 비통한 것이니 남편이 지혜롭지 못하면 누가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겠소(嗚呼! 女子之善, 大可悲也. 夫而不慧, 孰詳其儀).’라는 이인상의 서술(『祭亡室文』, 8:133)은 여성의 사회적 출구가 막혀 있어, 사회적 인정구조를 가질 수 없었던 맥락성을 비통의 정서로 헤아린 것이었다. 말하자면 여성은 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자기매개성을 확보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고, 이러한 사회구조는 여성을 더욱 남성과 가정에 순응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했다.

언어가 시대를 담는 기호라면, 여성적 가치는 기성의 기호 체계에 ‘환원’되고 ‘포섭’되는 방식으로 재현될 수밖에 없는 역사·사회적 조건에 놓여 있었다. 18세기에 빈곤을 감당하고 관리했던 여성에 대한 기록의 정황들은 대상과 언어, 기의와 기표의 불일치를 환기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 기록의 권력(문화자본)으로부터 소외된 대상들의 일상과 감성을 불편하게 억압하며 자발적 감내를 요청했으며,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인고의 감수성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했다.

5. 결론

18세기 사대부들이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청빈의 도를 지키며 상층 양반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가난을 감내하고 극복하는 여성의 희생과 노동이 요청되었다. 집안이 가난해서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현실적 책무는 온전히 여성에게 위임되었다. 가계에 대한 여성의 자기 책임성은 빈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여성에게 전가되었던 구조를 반영한다. 동시에 청렴과 안빈낙도라는 사대부 문화의 이면을 지탱하던 여성의 실천이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18세기 여성 생애사 기록들은 가난한 집안의 여성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가계를 책임지고 가난을 극복하며 시부모에 대한 효도와 남편에

대한 내조, 자녀 교육, 친인척에 대한 돌봄과 베품의 의무에 충실해야 했음을 보여주었다.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조건과 이념은 가난의 일차적인 희생의 몫을 여성에게 되돌렸다. 이를 여성의 수양으로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육체적, 물질적 노동을 인격의 차원으로 수렴하는 한편, 빈곤으로 인한 여성의 고통스러운 감정 표현에 대한 ‘통제의 정치’를 작동시켰다.

이때 여성의 경제력이나 치산 능력, 빈곤 관리는 철저히 ‘윤리’의 용어로 재현됨으로써, 당시의 유교적 통치 이념 속에 여성이 스스로 적응하도록 작용했다. 당시의 제도적 문자였던 한문을 배우고 쓸 수 있는 기회로부터 배제된 여성들은 남성-가족의 글쓰기를 통해 ‘자기의 역사화’가 위임되었으므로, 가족 안에서의 인정을 얻기 위해 가장-남성이 원하는 여성의 책무에 주력했고, 그 결과 빈곤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희생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탐구는 젠더 비평의 관점을 포함하는 동시에,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없었던 소수문화에 대한 탐구이며, 사회제도의 통치성을 기준으로 사고했을 때, 피통치자에 대한 제도적 관리와 문화적 시선의 연구와 연계된다. 이 글에서 다룬 18세기 여성의 삶과 그것의 사회화/역사화의 궤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단지 과거나 역사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여전히 현대에도 표피를 바꾸어 작동하고 있는 거대한 ‘권력-장치’와 ‘역사화-매개’에 대한 보편적 성찰의 매개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황수연 외,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8권, 보고서, 2010.
홍학희 외, 『19세기, 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1~9권, 보고서, 2013.
『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 <http://db.itkc.or.kr>

2. 단행본 및 논문

- 강성숙, 『조선후기(19세기) 일상생활의 장에서 남녀/젠더 차이의 간극과 교섭: 가장의 역할을 한 여성의 생활사 서술을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3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7~42쪽.
강혜선, 『조선후기 사족 여성의 경제 활동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권, 한국고전여성학회, 2012, 189~219쪽.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 상업 발달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8, 1~499쪽.
김경미,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 18~19세기 양반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권 4호, 2012, 85~117쪽.
안병직·이영훈 편저,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2, 1~444쪽.
이순구, 『조선초기 여성의 생산노동』, 『국사관논총』 49, 1993.
이영훈 편,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 출판부, 2004, 1~409쪽.
주 매, 『17,18세기 대구월촌(大邱月村) 지역 단양(丹陽) 우씨(禹氏) 가계 형제 간 사회·경제위상의 분화』, 『대동문화연구』 83권,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3, 249~279쪽.
최기숙, 『‘돈’의 표상성: 18·19세기 경제관념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18·19세기 야담집 소재 ‘돈’ 관련 일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29호, 국제어문학회, 2004, 261~297쪽.
최기숙, 『돈의 윤리와 문화 가치- 조선후기 서사 문학의 경제적 상상력』, 『현대문학의 연구』 32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181~218쪽.

최기숙, 「‘착한’ 돈과 윤리적 사회, ‘부자’를 보는 문학적 시선: 구비설화에 나타난 ‘돈/부자’ 담론의 서사 논리와 문학적 상상」, 『민족문학사연구』 37호, 민족문학사학회, 2008, 167~198쪽.

최기숙, 「조선시대 감정론의 추이와 감정의 문화 규약: 사대부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5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2, 3~52쪽.

한효정, 「17세기 전후 양반가 부인의 경제생활 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2007, 1~147쪽.

Abstract

Emotional Discipline and Female Life, Represented in Life History
during the 18th Century

Choe, Key-Sook

This paper analyzed the women's economical recognition and economic activity through 1,063 pieces of original texts which were written by male elites called *sadaebu* during the 18th century Joseon, focusing on the meaning of economy, female attitude toward family poverty and their management of household finances. At this research, I explained the female preparation plan on the poverty and their family members' attitude on penury.

The wide variety of texts which were recorded of female life stories showed that women should make a living by themselves to make their husbands keep their morality of poor but honest living. Poor women should take care of the poor neighbor and relatives even they suffered from extreme poverty and did their filial duty for their parents-in-law, and assisted their husbands. The poor family's wives and mothers should make sacrifices for their family members by laboring to earn money, take caring of their poor neighbor and relatives.

Woman's economic ability and managing poverty was represented with the terms of 'ethics', not those of 'potentialities' or 'qualification'. At that time, woman did not permitted formal educational opportunity of the writing with hanmun (written Chinese), so all the records about woman were written by their

male family members. As a resul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all the texts which were written about women's daily lives were reflected the male elite's perspectives; cultural angles, moral positions, and engendered viewpoint.

Key words : poverty, woman, life history, economy, labor, emotion, emotional discipline, personality, integrity (清廉), Anbin Nakdo (安貧樂道: be content amid poverty and take pleasure in acting in an honest way), property, personality

■ 본 논문은 7월 20일에 접수되어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8월 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